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연말연시 교회행사

### 송구영신예배

2000년 1월 1일 0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송구영신 예배가 2000년 1월 1일 0시에 교회당에서 드려진다.

이날의 예배는 0시정각에 타종과 함께 소동한 상태로 시작된다.

송구영신예배에서는 신년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의 갱신과 국가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새해 새 출발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한 뒤 맑은이들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는다.

교우들은 예배시작 30분 전에 미리 입장하여 조용히 자리에 앉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새로 오는 날들을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다.

# “새 천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 1월 2일 신년예배 · 성찬식

2000년도 첫 주일인 다음 주일(2일) I·II·III부 예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린다. 새 해,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 것들을 다짐하며 성찬식을 거행한다. 헌금시간에는 신년감사헌금을 드린다.

## 순결서약식

1월 2일(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2000년도 순결서약식이 있다. 이에 앞서 서약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1999년 12월 31일 오후 8시 3층 예배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2000 청지기수련회

2000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1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개최된다. 2000년도 우리 교회 표

어인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 1:1)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지기수련회는 특별새벽기도회와 더불어 진행된다.

청지기수련회의 진행은 먼저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새벽 5시부터 45분 간 새벽기도회를 갖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후 6시 30분까지는 요일에 따라 교회학교 교사, 교구일꾼, 찬양대원, 전도회원 그리고 장로·권사·집사 등 직분자별로 특강이 진행된다. <표 참조>

## 특별제직회와 공동의회

### 1 특별제직회

- 때: 1999년 12월 26일(주일) 찬양예배 후
- 의제: ① 1999년도 결산 승인의 건  
② 2000년도 예산 승인의 건
- 회원: 본 교회 서리집사, 권사, 집사, 장로, 교역자

### 2 공동의회

- 때: 2000년 1월 2일(주일) III예배 후
- 의제: ① 1999년도 결산 승인의 건  
② 2000년도 수입·지출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  
③ 기타
- 회원: 본교회 세례교인

### 2000년도 청지기수련회 일정

구분	교회학교교사	교구일꾼	찬양대원	전도회원	장로·권사·집사
일자	3일(월)	4일(화)	5일(수)	6일(목)	7일(금)
오전 5:00	특별새벽기도회(강사: 이종윤 목사)				
5:45	헌신된 교사와 신앙교육	교구일꾼의 실제	찬양대원의 자세	전도회원의 사명과 역할	성경적인 중직자상
6:30	이성득 목사	정운돈 목사	고경선 목사	이규정 목사	이종윤 목사

# 오늘 7개 교회학교 졸업식

## 찬양예배 시 졸업감사예배

교회학교 졸업식이 각 학교별로 오늘 일제히 거행되며 찬양예배 시에는 졸업감사예배를 드린다.

오늘 졸업식을 갖는 부서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모두 7개 교회학교이다.

우리 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천국 시민의 삶을 올바로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학령 및 연령에 따른 13개 교회학교가 있

다. 또한 새가족의 교회적응과 신앙성숙을 돕는 새가족부, 장애인을 위한 사랑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새가정부 등 특수 교회학교도 편성돼 있다.

우리 교회의 교육 이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천국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며 교육 목적은 ① 거듭난 인간 ② 성숙한 신자 ③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다.

또한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고

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인간, 가정, 이웃, 역사와 우주, 사회 그리고 국가, 직업, 재물 등 삶의 전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기 위함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교역자수련회 개최

27일(월), 28일(화) 양일간

새 천년 새 목회를 다짐하기 위한 교역자 산상 수련회가 27일(월), 28일(화) 양일간 열린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우리의 소망되신 그리스도이다.

### 송구영신 메시지

# 실패와 회복

다테복음 26장 69 · 75절

**지**난 한 해의 일들을 돌아볼 때 결심했던 것의 목표에서 어긋나고 원하던 뜻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연초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짐도 하지만 연말이 되면 항상 무언가 모자라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승리와 패배에는 반드시 승인과 패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의 한 단편을 통해 그가 실패한 후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실패의 원인과 회복의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1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세 번씩이나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51절).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의 인간적 혈기 때문에 대체사장의 종의 귀를 빼었습니다. 완력을 동원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살인미수를 범한 것입니다. 피해자 말고의 주인인 대체사장의 집에 주님이 체포되어 계시니 그는 땀땀이 그 집에 들어가 믿음을 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비겁해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인생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자기 위치 설정에서 실패했습니다(58절). 사람이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분명히 알며 가야 할 자리와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덜찍이'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신앙 생활에 회색 지대란 없습니다. 회색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망, 지옥과 천국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주를 따르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안 따르는 것같이 생활하면 실패는 자명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사람을 잘못 평가했습니다.

즉 자기는 과대 평가하며 다른 사람은 과소 평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베드로 자신이 주를 버릴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야 할텐데 그는 스스로 과신했습니다. 반면 주님이 재판 받으시는 모습을 구경하

는 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징계의 때를 맞고 있다면 불충한 인생이지만 때려서라도 권고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런 눈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깨닫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배신한 죄책감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뒤범벅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중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중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답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종운 목사**

가 여중의 질문을 받았을 때 주위에 듣는 사람도 없고 또 여중이라고 과소평가하여 긴장을 푼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 2.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은 순간 그의 양심의 소리가 살아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듣는 귀가 있어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 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천사의 말에도 들을 줄을 몰라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중에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그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주님의 자비롭고 사랑스런 눈동자를 보는 순간 견딜 수 없어 문밖으로 달려가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남달리 받은 은혜가 많으면서도 보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스런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개도 찬밥 한 그릇 주는 주인에게 감사할 줄 알고 소도 그 주인을 이는데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주 배은망덕한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실패의 밤과 통곡의 새벽을 지나 회복의 아침이 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은총이 임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라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회복의 은총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실패만 되풀이한 인생이라고 슬피하고 좌절하거나 자학만 해서는 안됩니다. 어제는 비록 약하여 넘어졌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도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할 주님의 눈동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궁하신 은혜 가운데 실패의 밤을 지나 회복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오직 순종으로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광현(대학부)

시간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흐르고 있다.

대학에 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 하숙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무질서함 속에 한 달, 두 달 타성에 젖은 생활이 시작됐다. 굶은 짐승도 먹이를 구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먹이를 포기하고 돌아서건만... 그날도 같은 길을 걸으며 양심의 소리와 또 하나의 육체의 소리로 갈등하며 가던 길에 달리던 차는 갑자기 번개 치듯 날 받았다.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도 난 자책과 자멸감에 헤엄치고 있었다. 150Km 속력으로 달리던 차에 받친 몸은 머리 대신 어깨와 팔이 떨어지면서 다 부서지고 다리가 지 부러져 신경은 완전히 파열되고 사고 현장에서는 모두들 날보고 죽었다고 했다.

전치 14주를 선고받고 4주만에 퇴원하는 빠른 회복은 주위를 놀라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드러냈었다. 전신을 다 깨매 놓고 붙들어 매놓았던 그 시간들은 정말 죽음 그 자체였다. 마치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던져져 고래 뱃속에서 숨도 못 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까?

사고 당시 제일 중요한 머리와 척추는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그 많은 상처 속에 임재하시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아픔과 좌절 그리고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문병 오실 때 눈물겹게 감사도 했지만 미울 정도로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당당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사고의 흔적이 너무 커 성형수술을 권유하신 부모님의 배려를 나는 극구 거절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의 선물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를 쳐 복종시키는 평생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에게 새겨주신 십계명 같은 생명의 흔적들!

나는 이번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상처투성이인 이 몸을 들어 세상을 향해 어떤 형태로든 이김없이 쓰실 줄 믿고 또 순종하려 한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과 대학부 형제 자매들, 발이 닳도록 심방 오셨던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복(五福)과 팔복(八福)

황정욱(집사, 장년부 부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천년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정초가 되면 “새 천년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밀레니엄 시대의 첫 인사말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래로부터 유교의 교훈을 많이 받아서 오복이라는 것이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복이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효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의 다섯 가지로서 ‘수’는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 ‘부’는 물질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좋은 형편을 말합니다. ‘강녕’은 심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이며 ‘유효덕’은 덕을 지키는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덕이 부족하고 인색하고 미련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자신도 즐겁게 살지 못하니 덕을 지켜서 사는 기쁨이 곧 복이라는 것이지요. ‘고종명’이라 함은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으로 평균 연령은 살고 잘 죽어야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객사를 하는 것이나 죽을 때 너무 오래 병중에 있어도 복스럽지 못하며 마지막을 마치 작품처럼 잘 끝내야 복된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 준들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2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인간 존재 자체와 인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으면 복된 것이 아니요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이 그저 아는 척하고 돌아다니다 제 밥 먹고 육먹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 아니요 권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도,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어 천하고 비굴해지는 사람도 복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에 “뿔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세상적 가치 기준에 상이한 진실과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적 복과 그리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상록수는 눈보라 속에서

권순단(권사, 고등부 부감)

우리 부부는 1972년 12월 25일 오후 3시에 결혼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결혼기념일이기도 하다.

목사님의 주례 속에 지금 국회의원인 변웅전 아나운서의 사회로 거창하게 식을 잘 치르긴 했지만 우리 부부는 그자리에서 씨웠다. 10년 교제 끝에 한 결혼이라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된 결혼은 아름답다는 책 제목도 있건만 결혼식장에서 씨웠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원인은 음

통성 없었던 나의 ‘의’ 때문이었다. 그때의 아픔으로 결국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남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1980년 4월 서울에 올라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 12월 17일은 내게 새로운 영적 전환점이 된 날이다. 성경에 비유로 인봉된 비밀은 반드시 나타날 날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책임을 못해서 하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은 맡은 자의 직분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상록수는 눈보라 칠 때 찾아야 한다. 그리하면 속지 않고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뜻은 이루기 쉬울지 몰라도 하늘 뜻은 이루기 어렵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세상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의 책망의 말을 들어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마음에 꽂힌 칼과 같아 그가 빼주지 않으면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지도자는 맨 앞에 설 줄도 알아야 하고 맨 뒤에서 쫓겨나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앞뒤, 전후를 다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일하는 것은 조금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 이곳은 그린(green) 크리스마스입니다

문형숙(카메룬 선교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지내는 한 해입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당신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이 남는 연말입니다.

수시로 귀가 따가울 정도의 큰비가 오다가도 해가 나면 뜨거운 것이 이곳의 우기의 모습인데 이제 그것도 어느새 끝나고 이제 전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기는 우기보다 더 무덥고 황토 흙먼지가 날려 옷과 몸이 다 붉은 색이 되곤 합니다. 특히 흙먼지를 통해 여러 가지 병균이 옮겨져 병도 많이 생깁니다. 기후도 변하고 공사 중인 작업터에서 시작한 신학교 강의, 도서 구입 및 정리, 재정 관리 등 동역자들과 학생들의 문화, 신앙, 성격을 파악할 시간도 없이 시작했지만 이런 오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음은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기도의 리듬을 찾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특히 프랑스 형제들이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사가 덜 끝나서 신학교에서 듣는 땅치 소리를 집에서도 들어야 하고 부실 공사로 손봐야 할 데가 많지만 제가 첫 입주자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선 대단히 깨끗한 아파트에 속합니다.

12월 17일부터는 방학이 시작되어 오늘은 오랜만에 여유를 찾으며 기도와 사랑의 빛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카메룬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깨어 기도하며 분별과 지혜의 영을 갖게 될 것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때마다 시마다 먼저 주님의 뜻과 계획을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 모습을 항상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신앙을 지닐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가 성경 신학의 토대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위에 바로 선 복음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성경의 절대무오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에서 처음 맞는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린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의미보다는 하나의 명절로 들며 있는 분위기이고 합법적인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들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기쁨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2000년을 능력과 소망 가운데 준비하시길 기원합니다. 마라나타!

※ 순례자 컬럼 ※

### “시작하는 사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말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세밀한 계획과 필요한 자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그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적인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기희생을 각오할 수만 있다면 일단 일은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의 흉내나 내고 남이 뒤아놓은 터 위에서 안일주의에 빠져 인생을 소일하기보다는 창조적 인물이 되어 무슨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해서 할 일, 못할 일 다 시작해 놓고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하되 옳은 것을 시작하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주간성경공부 시상식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올해의 '주간성경공부' 시상식이 있다. 주간성경공부는 성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올 초부터 주보와 함께 50회가 배포된 바 있다. 오늘은 그간 참여한 성도 중 25주 이상 참여한 111명이 수상하게 된다. 성적우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45주 이상 참석자

- 이지혁 원복순 최무순 이갑연 배은희 유근중 최난수
- 주정희 송두심 이순례 이경구 이혜순 남태순 심재을
- 김인순 김복녀 이승민 김병국 서옥덕 임훈규 김은수
- 박순옥 이옥녀 박창희 유후자 한길동 이광열 백수남
- 이민화 최학인 한금희 권영자 황보취자 윤순탄 신진성
- 윤은식 함은희 여현진 김현주 양숙란 윤봉준 최정숙
- 조명녀 김중근 강정옥 고영철 최경애 권오준 조상희
- 유·신 서춘식 김진옥 최영란 최정자 최혜순 윤찬오
- 장낙희 전배호 정정화곽선자 이점숙 조옥심 조정옥
- 이우상 여옥기 이옥현 김형택 정희순

### 40주 이상 참석자

- 송향란 조미환 최형렬 임승자 오충례 허영수 주화인
- 안본선 최근자 정경자 이남복 손재겸 정양일 박종민
- 김진숙 허인숙 김관홍 최일춘 박명식

### 35주 이상 참석자

- 이은선 박순봉 양옥자 김명심 최근자 김인숙 이보우
- 홍광숙 이정자 김중자 하정자 서영희 김영식 김민선
- 김경희 조선영

### 25주 이상 참석자

- 최영순 정하자 황 훈 윤문자 정정숙 강명신 김명화
- 황노전

■ 동정 ■

- \* 당회원은 2000년 1월 1일(토) 오후 4시 새 예배당 건축현장에서 기도회를 갖고 이어 이종윤 목사 덕에서 신년 하례회를 갖는다.
- \* 이번 주 식사는 임상헌·서희숙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서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앞에서 새해를 의미있게 맞이하도록
2. 연말연시 교회행사들을 위해
3.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